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성의 매개효과 -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태 량 량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성의 매개효과 -

The Effect of Chinese Venture Entrepreneu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Risk-taking Proper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 The Role of Innovativeness as A Mediator -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태 량 량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성의 매개효과 -

지도교수 윤 종 록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태 량 량

태량량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장 용 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종 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형 (인)

201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6
제2절 중국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성	7
1. 중국 벤처기업의 현황	7
2. 한·중 벤처기업의 특성비교	13
제3절 벤처 창업가의 특성	17
1. 성취욕구	17
2. 위험감수성향	19
3. 혁신성	19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1
1. 창업가와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1
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3장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29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29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30
1. 가설 I : 창업가의 성취욕구과 경영성과	30
2. 가설 II :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과 경영성과	31
3. 가설 III : 창업가 혁신성의 매개효과	32
제4장 연구방법	34
제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4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가. 독립변수	34
나. 매개변수	36
다. 종속변수	36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37
제2절 표본의 선정 및 특성	39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39
2. 표본의 특성	39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42
제5장 실증분석	43
제1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3
제2절 상관관계 분석	46
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46
2.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47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	48
제4절 가설검증결과	53
제5절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56

제6장 결 론5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58

참고문헌

설문지

표 목 차

〈표 1-1〉 논문의 구성	5
〈표 2-1〉 중국 10대 벤처기업(2005년)	11
〈표 2-2〉 한국과 중국 벤처기업의 특성요약	13
〈표 2-3〉 벤처기업용어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	14
〈표 2-4〉 중국에서의 벤처기업관련 용어의 비교	15
〈표 2-5〉 중국 하이테크기업 인증기준	16
〈표 2-6〉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28
〈표 4-1〉 창업가 특성 성취욕구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35
〈표 4-2〉 벤처창업가 위험감수성향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35
〈표 4-3〉 벤처창업가 혁신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36
〈표 4-4〉 벤처 창업가 경영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37
〈표 4-5〉 설문지 의 구성	38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표 5-1〉 변수의 탐색적요인 및 신뢰성 분석	45
〈표 5-2〉 변인들의 상관관계	46
〈표 5-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50
〈표 5-4〉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52
〈표 5-5〉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53
〈표 5-6〉 가설 검증표 1	54
〈표 5-7〉 가설 검증표	55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30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51
〈그림 5-2〉 경로계수	55

ABSTRACT

The Effect of Chinese Venture Entrepreneu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Risk-taking Proper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 The Role of Innovativeness as A Mediator -

Tai Liangliang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se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empirical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venture entrepreneurs of enterprise operation result influence degree. On this study the ventur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is: venture entrepreneu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venture entrepreneurs "Risk-taking Properties" and "Innovativeness". There were many research for venture business in Korea and many other countries, But there was little empirical study focuses on Chinese venture business and Chinese ventur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Risk-taking Properties and Innovativeness. According to reviewing the literature of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firms.

An Empirical Research o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Venture Business, An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in the Corporate Performance. For empirical research investigating the object of venture companies in China.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8, 2008 beginning February 22, 2009 end. Lasted for 2 months. The second survey is from June 22, 2009 beginning August 22, 2009 end. Lasted 2 months too. Emphasis placed on China Jilin Province, Tianjin, Shanghai and Guangdong Province. In this four regions to create more than 3 years or 3 years of the enterprise. A total of 300 surveyed venture company. During the 4 months of the time, received the questionnaire can be used 314. And its also analyzed.

For this stud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data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he SPSS 14.0 KO for Windows Progra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hypothesis testing and path analysis were analyzed used the Amos 6.0 Program.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order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or the research model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analyzed throug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chievement Motivation their desire for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The Risk-taking Propertie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novativeness but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Through an innovative sexual Risk-taking Propensity has an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But a direct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was not represented.

This research would be enriched with additional difference studies between Korean SME and Chinese SME.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벤처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을 도입한 이후 지난 약 30년간에 걸쳐 연평균 거의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의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국 개방·개혁을 통한 산업구조화실현의 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이 낙후된 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의 증대, 경영기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첨단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은 국영기업이나 연구소의 민영화를 통해 늘어나고 있으며 우수한 창업자에게는 경영권을 위임, 주식 인센티브제공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특히 화교자본)의 직접투자,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포함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창업보육센터는 마케팅, 전략, 관리, 회계, 인사, 법률, 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長江하이테크단지, 哈爾濱開發區등에는 300여개 이상의 창업인큐베이터가 활동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3). 창업을 원하는 국내중국인, 해외유학후 귀국한 중국인 그리고 외국계기업들이 이곳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중국 북경에는 중국과학원등 200여 연구기관과 칭화대학, 북경대학 등 70여 대학이 위치한 중관촌(中關村)이라 불리는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

중국은 시장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성장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높은 기업성장기회로 인해 많은 수의 기업이 산업내에 존재하고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창업가 심리적 특성 다양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기업과 경쟁 하는데는 지금동원과 시장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張軟美, 2002).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은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분된 시장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21세기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 동력은 중국 청년 창업가 들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첨희, 2008. p15) 중국 청년 창업가들은 대부분 2000년 전후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청년 창업가들은 지금 중국경제발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화된 경영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중국 '신경제' 기업들은 신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벤처산업은 1985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고신산업 통계연감(2007)』에 따르면 중국의 벤처기업의 수는 72172개에 이르고, 고신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674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는 이들 기업이 창출한 당기순이익이 총 7318.8억 위안에 달하고, 고신산업의 생산증가가 중국 제조업생산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에 이르고, 중국 GDP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원래는 중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입한 외국기업이나 투자가하고 합작으로만 국제경제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직접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로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산업의 발전이 매우 빨라져, 더욱이 WTO에 가입 후 중국기업 국제화경영주체조직은 이미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하이테크 (hi-tech) 기술 기업의 국제화 경영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시장개방확대와 투자환경개선으로 외국기업의 첨단산업 진출과 중국현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급증하면서 산업전반의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져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퇴출되고 있다. 또한 해외선진기업의 진출,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 수요의 증가로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한국기업들은 중국진출에 매우 적극적이고 미래 성장의 엔진을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홍개, 정수진, 2007) 양국의 활발한 경제교류흐름에 맞추어 향후 벤처기업도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중국벤처기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벤처기업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가 특성, 전략, 환경, 조직구조 및 산업환경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직접 혹은 상호작용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andberg and Hofer, 1987; Roure and Keeley, 1990; Duchesneau and Gartner, 1990; Baum et al, 2001, 이장우, 이성훈, 2002, 김영배, 하성욱, 2000). 초기 연구들은 주로 창업가에 관한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Gartner 1985; Covin & Slevin, 1991; Cooper 1993; Lumpkin & Dess, 1996). 그러나 창업가특성과 벤처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중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혁신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위험 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벤처기업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성과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창업가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그리고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가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의 표본은 중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설문조사기간은 1차조사가 2008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0일 까지 2개월간 이루어 졌습니다. 2차조사는 2009년 6월 22일부터

2009년 8월 22일 까지 2개월간 이루어 졌습니다. 중국 길림성(吉林省), 천진(天津直轄市), 상해(上海直轄市), 광둥성(廣東省)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벤처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1991년 3월 중국 과기부에서 발표한 『國家高新技術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證條件和方法』에서 규정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논문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 2 장은 벤처기업의 정의, 중국벤처기업의 현황 한·중 벤처기업기업간의 차이점 비교, 그리고 벤처기업가의 심리적특성과 혁신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3 장은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연구방법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표본의 추출과 특성,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5 장은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그리고 모형검증을 통한 추정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6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1〉 논문의 구성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논문의 구성
▼
2. 이론적 배경
2.1 벤처기업의 정의 2.2 중국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성 2.3 한, 중 벤처기업간의 차이점 2.4 중국 벤처기업의 창업가 2.5 선행연구
▼
3.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 3.2 연구가설의 설정
▼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2 표본의 선정 및 특성 4.3 자료 분석 방법
▼
5. 실증분석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5.2 상관관계 분석 5.3 연구모형의 분석 5.4 가설검증결과 5.5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을 찾기 힘들다. 다만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원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험이 많은 첨단기술 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또는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을 위해 기업가 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신사업”, “기술 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 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를 독립된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혹은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요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에 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인증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고위험, 고성과, 고성장을 갖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High Technology-Based Firm, Start-up company, Venture capital-Backed Firm, Risky Business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고, 연구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장우, 1997). IT, BT, ET등의 첨단산업은 산업자체의 특성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기 좋은 조건을 있지만 고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이 아닌 전통산업

에서도 벤처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조직혁신과 기술혁신은 조직규모와 연령에 무관하기 때문에 신생기업, 중소기업만이 벤처기업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 존재 한다면 대기업 수준 혹은 창업된지 오래된 기업도 벤처기업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특징을 갖는 창조적 파괴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창업조직" 으로 정의 된다(이장우와 2인, 2003).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과를 살펴본다면 신시장 창조와 개척, 기존시장의 대체등을 성과로 고려할 수도 있다(이춘우, 2002).

중국은 아직 학술적이나 법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해 명확히 통일된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벤처기업의에 가까운 위험기업(風險企業)을 비롯하여 과기형 민영기업(科技型民營企業), 과기형 중소기업(科技型中小企業), 하이테크기업中小(高新技術企業), 하이테크중소기업(高新技術中小企業)등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2절 중국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성

1. 중국벤처기업의 현황

중국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은 국영기업이나 연구소의 민영화를 통해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창업자에게는 경영권 위임, 주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특히 화교자본)의 직접 투자와 벤처캐피털을 통한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포함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기관은 400여 곳이고 중국 북경, 상해, 심천 등에서 활동 중인 벤처캐피털의 수는 325개에 달하며 이들의 총자산은 약 992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中國 科學技術部, 2004).

중국의 벤처기업은 짧은 역사 속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의 벤처기업의 수는 72172개에 이르고, 고신기술산업(高新技術產業)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1674만명에 또는 이들 기업이 창출한 당기순이익이 총 7318.8억 위안에 달하고, 고신산

업의 생산증가가 중국 제조업생산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에 이르고, 중국 GDP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7).

또한 청화대학교 중국 창업연구센터의 중국 창업관찰보고에 의하면 2003년 창업 활동자 비율은 11.6%로 18세에서 64세 성인 100명당 11.6명이 창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다(한국무역협회, 2004).

현대 산업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 공업사회, 산업구조로부터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기존 기업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탄생시켰는데, 벤처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기업형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벤처기업은 195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거나, 대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신종 기업형태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한광학, 2005).

중국은 덩소핑이 1978년도 중국과학기술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부터 과학기술을 시작하였다. 1985년도 중국과학기술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다”라는 가치를 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제개혁을 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고신기업 즉 벤처기업은 이런 노력의 실천도구로 활용되었다. 중국과학기술부에서는 1988년부터 “훙불계획”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중국벤처기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약 20년 이상 지속된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華爲, 聯想, 中興, 方正, 百度, 阿里巴巴등 벤처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화대 벤처캐피탈연구소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국내외 벤처캐피탈 기구의 중국벤처기업의 투자는 대략 3.7억 달러, 그중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20%이며 정부의 투자가 대부분으로 개인투자자 혹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극히 적다. 그외 80% 국외로부터의 투자이다. 국내 투자중 민간투자가 적은 이유는 투자후에 자금회수(退出机制)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투자를 꺼리기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벤처투자자는 크게 5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개인투자자(私型), 큰 규모의

전문 벤처캐피탈(大企型), 정부혹은 정부관련기관 종사자(小企投公司型),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합작기관형(合作型),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정부형(政府型)으로 구분된다(投公司模式的利弊分析, 西南金融).

중국벤처캐피탈은 투자자금의 회수에만 관심을 갖고 벤처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벤처기업은 자금대신 주식으로 투자받길 희망하며 전문적인 경영경험이 있는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벤처캐피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환경과 정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 투자 및 정책의 실시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후 흑자를 실현하는데 대략 3-5년 이 소요된다.

벤처캐피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기업법과 기타 법률(《公司法》)이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법(《公司法》)에는 명확하게 벤처캐피탈기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자기자본의 50%이상을 하나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고기술산업은 소프트웨어, 컴퓨터하드웨어(計算機硬件), 인터넷, 정보통신(情報通信), 반도체(半導體), IT, 의약보건(醫藥保健), 환경관련(環保工程), 바이오(生物科技), 신소재(新材料), 자원개발(資源開發), 광전자(光電子) 및 광부품(光子光機一體化), 신에너지(新能源) 및 고효율절약기술(高效節約技術), 핵응용기술(核應用技術), 기술서비스(科技服務) 등 16가지이다. 전통산업은 제조업, 농업 및 기타전통산업으로 분류된다.

중국벤처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경제의 축이 전통산업에서 IT를 포함한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40%이상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통신 등의 IT분야이며, 중국내 100대기업의 75%가 IT관련기업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30%가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전자부문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3).

중국시장의 WTO가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중국시장은 규모는 매우 크고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한다(삼성경제

연구소, 2003).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의 계획 경제체제와 짧은 기간의 시장 경제체제 경험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분야의 기술을 신속히 습득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토지, 원료,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기업은 중국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크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경영기업, 기업문화를 전수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벤처기업의 소재지는 중국경제의 지역적 편차로 인하여 연해지역과 내륙의 몇몇 성과 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벤처기업에 공급되는 자금이 부족하다. 또한,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고 생존율이 낮은 것과 같은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 청화대학 벤처연구센터에서 발간한 『GEM세계벤처기업관찰(2002)』에 따르면, 중국 벤처기업들은 창업 당해연도에 30%, 3년 이내에 60%가 도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업3년 이후까지 생존한 벤처기업들의 도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해서 창업 5년 이후에는 20%대의 도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원래는 중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입한 외국기업나 투자가와 합작으로만 국제경제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직접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더욱이 WTO에 가입 후 중국기업 국제화 경영주체조직은 이미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하이테크(hi-tech)기술 기업의 국제화 경영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2006년 벤처기업의 제품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5,288억달러에 달하고, 2002년의 3.5배로 무역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제시장경쟁력은 날마다 강화하고 있다(中國國家統計局, 2007).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류제품은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제품으로, 투자의 수출합계는 전부의 하이·테크제품수출액의 93.7%를 차지하였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 제품의 수출액은 919.3 억달러에 달하여, 작년 동기에 비하여 68.6% 증가하였고,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6% 증가하였으며, 하이·테크제품 총수출액의 83.8%를 차지하였다. 제2위의 전자기술제품종류 수출액은 114.2 억달러에 달하였고, 44.3% 증가하였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종류, 광전기기술과 컴퓨터 통합 제조기술제품의 수출액도 10억달러를 초과하였다. (中國國家統計局, 2007).

〈표 2-1〉 중국 10대 벤처기업(2005년)

순위	기업명	분류	특징
1.	百度 Baidu.com Inc.	인터넷	Nasdaq 상장(www.baidu.com). 2000년 설립 중국인터넷검색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최대검색엔진
2.	阿里巴巴 Alibaba E-Commerce Corp.	인터넷	2005년 Yahoo! China 인수(www.alibaba.com) 2003년 설립, 영어사이트 전 세계 200만명의 회원, 중국 사이트 7만명의 회원, 세계 최대의 인터넷 B2B 전문 상거래사이트
3.	分眾传媒控股 有限公司 Focus Media	광고	2005년7월 Nasdaq상장(www.focusmedia.cn). 2003년 설립된 중국 최대의 온오프라인 광고 전문기업. Toyota, P&G, Motorola 등 1,500여 기업고객
4.	淘宝网 TaoBao. Co. Ltd.	인터넷	알리바바의 자회사, B2C전자상거래, 옥션 www.taobao.com
5.	中信微电子 有限公司 TechFaithWireless Inc.	정보통신	Nasdaq 상장, 2002년 설립. www.techfaithwireless.com 유선 및 GPS, GPRS/CDMA 등의 모바일 Solution, Module
6.	德信无线通讯 科技有限公司	정보통신	GSM, 3G/WCHMA, CDMA1 등의 이동통신 www.cnii.com.cn
7.	博客网 Bokee.Co.,Ltd.	인터넷	중국 최초의 블로그 서비스(www.bokee.com)기업 2002년 설립. 가장 투자 잠재력 있는 회사로 선정
8.	无锡尚德太阳能电 力有限公司 Suntech Power Co.	태양/ 2차 전지	세계태양에너지부문10대기업 아시아 100대 기업 2002년 설립. www.suntech-power.com
9.	芯原股份公司 VeriSilicon Holdings Co. Ltd.	반도체	2001설립된ASIC, Foundary, Package기업 High-Tech고속성장50대 기업 (www.verisilicon.com)
10.	中國博客网 BldgCN.Co., Ltd.	인터넷	2002년 설립. 중국최대의 블로그 서비스 (www.blogcn.com).현재 회원수 450만명

출처: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2 No. 3(2007) pp.313-343

중국벤처기업의 국제화 발전이 빠르지만 벤처기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중국 벤처기업들은 아직 국제화 경영의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소멸한다(李英, 陳岩 2001). 그리고 중국 하이테크 벤처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중국 하이테크산업 제품은 기술의 밀집정도가 낮고, 수출의 하이·테크 제품의 과학기술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중국 대다수의 하이테크산업과 하이·테크 수출 제품은 세계 하이수테크수출 제품 생산에서 하위에 처해있다(舒少澤, 2002). 즉 세계의 하이·테크수출 제품의 생산과정 중에서 조립과 조립가공무역의 공정에 처해있다

중국벤처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아 주식시장에 진입할 만큼의 조건을 갖춘 기업이 적으며 조건이 충족하여도 주식시장에서 발행 가능한 금액을 정부가 정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창업자의 자기자본이 적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셋째, 중국 벤처기업은 마케팅 개념이 아직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주변사람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넷째, 자신의 것을 소유하길 좋아하는 중국인의 관념으로 인해 창업 시 남의 돈을 빌리기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친척이나 친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벤처캐피털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창업자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벤처캐피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하이테크 벤처기업의 경우 전문 지식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 많지만 실직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의 경우 전문지식과 관련 없는 분야의 창업이 많다(李英, 2001).

최근 5년동안 벤처기업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27.0% 증가하였다. 중국벤처기업은 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분야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거시적인 정치 경제의 환경과 산업 환경의 영향 때문에 중국의 하이테크산업 중 각 업계의 발전 속도는 균등하지 않는다.

2. 한·중 벤처기업의 특성 특성비교

중국벤처기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중국의 벤처기업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있다. 그리고 벤처산업도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의 벤처기업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는 매우 많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존재하는 제도들이 중국에는 없으며 반대로 중국에 있는 제도들이 한국에는 없을 수 있다. 장수덕(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벤처기업가들이 중국에 비해 기업경영경험이 적으며 성취욕구가 높고 비전이 보다 뚜렷하다. 또한, 중국벤처기업들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관료제적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원가우위, 마케팅차별화, 기술혁신차별화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와 허재진(2007)은 중국 벤처기업이 한국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세분화 전략을 중시하는 것도 발견하였다.

〈표 2-2〉 한국과 중국 벤처기업의 특성요약

주요 차원	변수	한국 벤처기업	중국 벤처기업
기업가 특성	기업경영경험 성취욕구 비전의 명확성 비전의 차별성	비교적 적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비교적 많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적 특성	스톡옵션 이용유무 엔젤자금 이용유무 자기자금 비중 대표자 및 임원주식비중 벤처캐피털 자금지원 벤처캐피털 경영지원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많다

전략적 특성	원가우위 전략 마케팅차별화 전략 기술혁신차별화 전략	상대적으로 많이 중시 상대적으로 많이 중시 상대적으로 많이 중시	상대적으로 적게 중시 상대적으로 적게 중시 상대적으로 적게 중시
조직적 특성	공식화 분권화 계층화 보상의 공정성 조직배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낮다

출처: 강수덕(2006) "한,중 벤처기업의 특성 비교"

특히 개념과 인증적으로 비교 하려면 한국과 중국 간에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일반적 용어와 관련 법적/제도적 측면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 벤처기업용어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

	한 국	중 국
일반용어	벤처기업, 연구 개발형기업, 기술집약형기업 등	위험기업, (風險企業) 과기형민영기업 등 (科技型民營企業等)
법적내지행정적 용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고기형중소기업, (高新技術型 中小企業) 하이테크기업, 하이테크중소기업

출처: 이영덕외 4인(2004) 『중국 벤처비즈니스 이해』와 裴蕾(2005)

다음 <표 2-4>는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용어 및 법적내지 행정적 용어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4> 중국에서의 벤처기업관련 용어의 비교

용어	특징
위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의미만 살려서 사용한 용어. ② 첨단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③ 현실적으로 중국정부 정책적 문건에는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
과기형 민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혁신 능력을 갖추고 기업의 소유와 지배가 유인기업. ② 소유는 비록 국유라 하더라도 최소한지 배면에서 민간전문 경영인이 위탁을 받아 경영하는 기업.
과기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업화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② 벤처기업의 특성과 의미상으로 가장 부합되는 용어임. ③ 중국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금을 설립하면서 사용한 용어에 불과함.
하이테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술의 수준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 ② 벤처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③ 벤처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갖아 많이 사용되는 용어. ④ 최근 중국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임.
하이테크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 조건은 하이테크 기업과 유사함. ② 기업의 규모를 직원수가 500명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함.

출처: 한광학(2005) 裴蕾(2005) 연구에 근거하여 요약정리

이에 관련하여 중국 벤처기업의 성과결정요인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국의 상황에서 위에서 살펴본 벤처기업 정의에 가장 가까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이에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고수의 고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에 근거하고 또한 최근 중국 벤처기업연구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이테크기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하이테크기업을 중국의 벤처기업이라고 준용하고자 한다. 하이테크기업의 인증 기준은 다음 <표 2-5>과 같다.

<표 2-5> 중국 하이테크기업 인증기준

인 증 조 건	
업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과학 및 전자 정보기술 - 우주 기술 및 항공기술 - 광 전자학과 기술 -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기술 - 재료과학 및 신소재 기술 - 에너지과학, 새로운 에너지 및 효율적 에너지 절약기술 - 환경 보호 기술 - 지구과학 및 해양공학 - 기준 물리과학 및 방사기술 - 의약 과학 및 생물 의학 기술 - 기타 기준 산업 에서 응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인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기술 인력이 전체 인력의 30%이상. - R&D종사 인력이 전체 인력의 10%이상.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비용이 총 매출액 대비 3%이상. -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성 수입과 첨단기술 제품매출의 합계가 해당기업 총수입의 50%이상 이어야함.

출처: 《國家高新技術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證條件和方法》에 근거 정리함.

제3절 벤처 창업가의 특성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Sexton & Bowman, 1986; Kuratko & Hodgetts 2001; 김종관과 이용탁, 2001) 벤처기업의 창업가의 교육수준과 이전직장경험 혹은 창업경험 심리적 특성 등의 개인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Vesper, 1980; 김인수와 이진주, 1982 이진주와 윤정환, 1987)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가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McClelland(1961)은 창업자의 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성취욕구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인 성취욕구와 어떤 일에 따르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 하는 위험감수성향을 파악하였다. 창업자가 어떤 동기에서 창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동기적 특성은 비전 혹은 경영목표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Bird,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특성을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성취욕구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McClelland(1961)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성취 욕구를 도입하면서부터 성공적인 창업가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는 Murray(1938)의 연구로부터 유래한다. Murray(1938)는 "성취 욕구를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의욕"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정성환과 김해룡(2001)은 성취욕구를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McClelland(1961)의 연구 이래 많은 연구들은 성취욕구를 창업가적 행동과 관련시켜 왔다. Hornaday & Aboud(1971), Decalo & Lyons(1979) 등은 창업가가 보통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창업가는 다른 일반사람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Miner와 그의 동료들(1980) 역시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기업의 성장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가들이 도전의욕을 가질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Schrang(1965)는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낮은 경우에 평균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기가 용이한 반면,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높은 경우는 큰 이득을 보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잘못 될 경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조형래(1995)는 성취욕구와 기업성장 관련변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에 반해 조임현(1998)은 한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가의 성취동기, 권력동기, 친애동기와 매출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성취동기와 권력동기는 매출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친애동기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며, 적절한 난이도의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도전적 목표와 목표이행의 수단으로 가치 피드백을 설정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감행한다. 그들은 적당한 난이도의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실패의 횟수를 줄이고, 도전적인 과업의 달성과 함께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만족감은 성취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자 혹은 창업가가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가의 강한 성취욕구는 강한 성취욕구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Smith와 Miner(1983)는 창업가적 성취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장우(1998), 박영배와 윤창석(2001)의 연구에서도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이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 선호적 의사결정을 도입하며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말한다. 위험감수성향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고,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의 하나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을 'High risk, High return' 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th와 Miner(1971)는 "기업가를 예견력을 소유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Gasse(1982)에 의하면 창업자는 불확실성을 "심각한 위협으로서 보다 긍정적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Smith & Miner(1983)는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일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Begley와 Boyd(1987), 이장우(1998) 역시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기업가가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였다(박영배, 윤창석, 2001). 또한 Hornaday와 Aboud(1971)는 기업가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Kimberly와 Evanisko, (1981)는 기업가를 위험을 가정한 뒤, 기업을 관리하는 이성적 의사결정자의 중심적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3. 혁신성

혁신은 동물의 원피를 잘 손질하여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과거와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으로 일하는 것 또는 새롭게 개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려는 성향 또는 조직이 변화하려는 의지로 보고 있는 혁신성은 그 개념이 다르다. 이러한 혁신 또는 혁신성에 대한 연구는 대상 분야,

형태, 학자에 따라서 그 개념과 정의가 매우 상이하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혁신 또는 혁신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창업가특성의 구성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혁신성은 그 개념과 정의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범용적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 과정, 실천과 무관하게 사용되어 좀 더 광의적 의미라면, 창업가특성의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협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혁신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ompson(1967)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Zaltman, et. al(1973)은 새롭다고 느끼는 아이디어의 실질적, 물질적인 가공품이라고 주장 하면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일찍 적응하는 능력의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Quinn & Cameron(1983)과 Phillips, et. al(1983)는 문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Van de Ven(1992)은 혁신성을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조직문화적관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Hurley(1998)는 집합적 관점과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정도로 혁신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Matsuno(2002)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향을 창업가에 매우 필요한 기질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Kuratko & Hodgetts(2001)는 창업가 특성에 있어 혁신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혁신성은 벤처창업가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드는 기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chumpeter(1937)는 기업가를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업가에 의해 제품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생산과정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개념은 경제효율경영성과 복지를 이끌 수 있는 혁신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Schumpeter가 말하는 기업가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성을 갖춘 사람이며,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에서 혁신적 경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Drucker(1985)는“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가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을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들

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임을 알 수 있다(유만혁, 1997). 또한 김영수(1997)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기업 등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기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에 있어 혁신성의 구성요소로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 창업가와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창업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rron & Robinson, 1993; Baum, 1995; 이장우, 1997). 수십년을 넘게 생존하는 기업은 이윤추구 외에도 의미있는 목적, 가치, 철학을 갖고 있다. SONY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미사루 이부카의 비전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개척자정신이다. 패망직후의 일본의 산업환경에서 당시 SONY의 비전을 맹목적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트랜지스터 라디오, VCR, walkman 등 세계최초의 제품을 무수히 만들어내며 천자업계를 이끄는 기업이 되었다(김연수, 2002).

창업가의 교육수준, 심리적 특성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Herron & Robinson, 1993). 또한 창업가의 과거 직장경험 및 창업경험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Vesper, 1980). Child(1972)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은 성장단계 특히 성장하기 시작하는 창업단계에서 창업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Lippitt & Schmide, 1967; Greiner, 1972; Quinn & Cameron, 1983; Miller & Friesen, 1984). 또한 창업가의 교육수준, 창업경험 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김연수와 이진주, 1982; 이진주와 윤정한, 1987).

조형래(1995)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경력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창업가의 동기적 특성은 비전이나 경영이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erron & Robinson, 1993; Baum, 1995; 이장우, 1997). 심한 경쟁상황에서 벤처기업은 생존을 위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이므로 위험감수성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Covin & Slevin, 1989). 창업가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에 대한 심리적특성, 학력, 관련사업경험과 같은 경력특성, 비전과 경영목표의 명확성과 차별성과 같은 동기적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장수덕, 2000).

Sexton 과 Bowman(1986)은 기업의 성취욕구 위험 감수성, 통제의 위치, 모호함에 대한 인내, 그리고 자율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egly와 Boyd(1987)는 창업자의 성취욕구, 통제부위, 위험 감수성향, 인내심, 행동유형(A형, B형)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자들은 성취욕구, 위험 감수성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의 특성과 벤처기업의 성과를 연구한 학자로는 Zimmerer & Scarborough(1996)와 Chandler & Jansen(1992)을 들 수 있다. Zimmerer & Scarborough(1996)는 성공적인 벤처기업가의 특성을 1)참여와 판단력, 2)책임감, 3)기회포착, 4)위험 모호성, 불확실성에 대한 감수능력, 5)자기 확신, 6)창조성과 유연성, 7) 빠른 피드백 능력, 8)정열, 9)미래지향성, 10)실패에 대한 교훈, 11)리더십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경영의 경험이 많으며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성향이 강하고, 분명한 사업아이디어와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참여적 경영과 낮은 의사결정단계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 Duchesneau & W.B. Gartner는 사업초창기에 있어 신 벤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신 벤처기업 26개를 상대로 1)기업가 측면 (모기업의 조재여부, 관리경

험의 폭, 위험을 줄이는 행동, 기업가의 심리적인 특성인 통제의 위치, 2)창업행위(사업아이디어, 비전의 폭, 창업행동, 계획기간, 계획 폭, 시장조사, 전문적인 상담, 외부로부터 구입된 회사, 3)회사의 행동 및 전략(종업원 전문화, 개인적인 명령권, 조직형태, 의사결정구조, 기업가의 의사전달, 자본력, 저원가의 넓은 시장)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전통적으로 벤처창업가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창업자(Entrepreneur)"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erron & Robinson, 1993). 아울러 학술적인 연구의 초점도 초기에는 창업자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었다. 기존에 수행된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심리적 특성에 대한 파악과 심리적 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과 창업경험이나 관련 산업 경험, 학력등과 같이 창업자의 경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그러한 경력특성들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마다 접근방법이 상이하며, 변수로 고려되는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 & Gascon, 1995). 따라서 일부분 학자들은 창업가의 경력변수나 심리적 특성보다는 창업가의 행위적인 특성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Sandberg & Hofer, 1987). 조형래(1995)가 창업가의 행위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 혁신성을 상황변수로 하여 연구하였지만 후속연구의 부족으로 이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창업자의 동기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하는 특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

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주목을 받았다.(Gartner, 1989). 이들 심리적 특성에서도 다양한 특성들이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는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각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공통된 연구결과는 창업가의 신뢰적 특성이 성과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등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자 특성연구와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취욕구(Amit et al., 1993; Sexton & Bowman, 1985), 통제위치(Van de ven et al., 1984), 위험감수성향(Baum, 1994; Amit et al., 1993), 자기표능감(Bandura, 1986; Chen et al., 1998; Lock & Lahan, 1990) 등으로 구분된다.

가.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Henry Murray and McClelland 등이 시작, 확장시켰다. 이후 기업가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취욕구는 거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가 특성과 성취욕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매우 상반되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성취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Begley & Boyd, 1987).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성취욕구와 벤처기업 성공 간에는 유희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형래, 1995; 이장우와 장수덕, 1998). 반면 성취욕구가 기업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Sexton & Bowman, 1985). 마찬가지로 Low and MacMillan(1988)은 성취욕구가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요인으로는 보지 않았다.

성취욕구는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몰입 등으로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특성이다(MacMillan, Block & Narasimba, 1986). Smith & Miner(1984)는 성취동기가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McClelland(1961)

는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이 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의 과업수행을 피드백 받기 원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창업가가 강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사업에 몰두하는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Begley & Boyd, 1987; Amit, Glosten & Muller, 1993; Baum, 1994; 조형래, 1995). 이장우와 장수덕(1999)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창업가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성취욕구가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창업가가 강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사업에 몰두하는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취욕구는 창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요소 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발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동적으로 나서려 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Steers(197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와 성취욕구간의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만족하였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창업자의 다른 여러 요소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높은 자율성, 독립심, 인내심을 지니며 보조의 필요성과 순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창업자들보다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목표의 높은 기준과 경쟁하며, 계속해서 그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주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창업자들의 행동은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아니라 사업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히 대처하는 정도로서 (Jackson, Hourany & Vidmar, 1972),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적절한 위험감수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Begley & Boyd(1987)는 위험감수

성향이 낮은 창업가가 높은 재무성적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Brockhaus(1975)는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성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exton & Bowman(1985)은 위험감수성향이 기업성계에, 그리고 Bandura(1986), Sadri & Robertson(1993), Judge, Erez & Bono(1998) 등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행동성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Baum(1994)은 경영자의 자기효능감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정 (+)의 성과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리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창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이 빠짐없이 위험감수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험감수성향은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 개인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느냐를 놓고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Smith와 Miner(1993)는 위험회피가 저성장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보다 고성장을 이끄는 기업가 사이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egley와 Boyd(1983)은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창업자가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얼마나 잘 조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는 그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 및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위험감수성향을 평가절하하거나 위험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연구 역시 그 결과가 매우 복잡하다. Begley & Boyd(1987)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벤처기업가가 더 높은 재무적인 성과를 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위험감수성향과 벤처기업 성과간에 일관된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것도 있다(Baum,

1994, 재인용). 이에 대해서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들은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매우 위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Amit et al, 1993). 실제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가는 매우 높은 위험 감수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위험 감수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성공한 기업가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산을 통해 실제 위험을 높게 지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장우, 1997).

그러나 Brockhaus(1980)의 연구에서는 위험 감수성향과 재무적 성공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Sexton & Bowman(1985)등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자는 일반인들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asse(1982)에 의하면 창업자는 불확실성을 심각한 위협으로서 보다 흥미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Begley & Boyd(1987)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와 경영자 사이의 모호성 인내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의 모호성 인내도가 경영자 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동기 부여 적으로 작용한다면 기업가적인 성공을 촉진시킬 것이며, 창업자는 비 창업자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명백히 높음을 보여 주었다.

Smith & Miner(1984)는 창업가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연령이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공한 창업가의 연령은 창업가의 평균연령보다는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다(Birley & Norburn, 1987).

〈표 2-6〉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고려요인
Bunder(1962)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자기효능감
Edwards(1969)	성취동기
Carland, et al.(1984)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통제위치, 자율성
Van de Ven, et al(1984)	통제위치
Smith & Miner(1984)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Sexton & Bowman(1985)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통제위치, 자율성
Begley & Boyd(1987)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통제위치
Locke & Latham(1990)	자기효능감
Amit, Glosten & Muller(1993)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Sadri & Robertson(1993)	자기효능감
Baum(1994)	정취동기, 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Ludge, Erez & Bono(1998)	자기효능감
Chen , et al.(1998)	자기효능감
조형래(1995)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통제위치
이장우, 장수덕(1999)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박영배, 윤창석(2001)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최용호, 신진교, 김승호(2003)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박철민(2005)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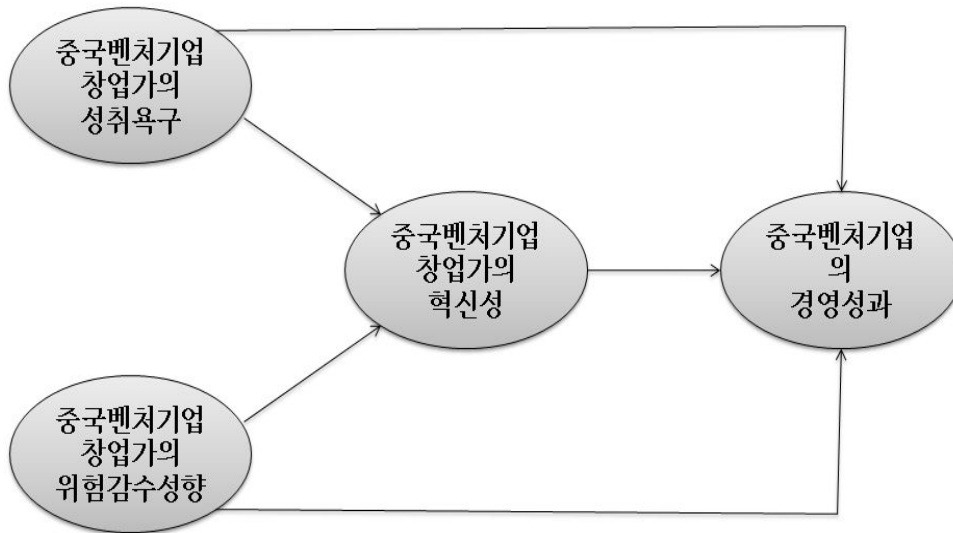
출처: 김형철(2009)“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3장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인 벤처기업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 그리고 경영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창업가의 특성이나 경영전략은 주로 독립요인으로 구성 하여 연구되었다(Wiklund & Shepherd 2005; Sandberg & Hofer 1987; Cooper 1993; Covin & Slevin 1991). 그러나 최근 들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차원, 경영 전략적 차원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연구(Chrisman, Bauerschmidt & Hofer, 1998; Cocin & Slevinm 1997; Lumpkin & Dess, 1996)가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기업 성장의 포괄적인 다차원 통합 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Baum(2003)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국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 특성을 경영성과에 대한 설명의 한계(Covin & Slevin, 1998)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Baum(2003)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 연구에 근거를 두고 창업가 특성을 외생변수로 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그림 3-1>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앞에서 제시한 창업가의 성취욕구특성, 위험감수성향과 창업가의 혁신성 그리고 경영성과 사이의 연구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I :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McClelland(1961)가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후로 성취욕구는 창업자의 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Sexton와 Bowman(1985)은 성공적 창업인 들에게 뚜렷한 성취동기가 나타남을 밝혀냈으며, Smith 와 Miner(1984)도 성취욕구와 성장률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Johnson(1990)은 창업자의 성취욕구가 창업자의 행동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형래(1995)의 연구에서는 성취욕구가 성과변수와 강한 상황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중 성취욕구는 최고경영자가 벤처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이장우와 장수덕(1999)은 창업자의 성취욕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따라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조직의 자원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외부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창업가의 심리적특성 중 성취욕구는 최고경영자가 벤처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정성한과 김해룡(2001)은 성취욕구를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잘 이행하려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Smith와 Miner(1983)은 기업가적 성취 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위험감수성향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고,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의 하나인데 Smith와 Miner(1971)은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는 중국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 II :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과 경영성과

위험감수성향은 창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조형래, 1995; Smith 와 Miner, 1984). 또한, 위험감수성향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

을 말하는데 위험감수성향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고,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의 하나인데 Smith 와 Miner(1984)는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인 일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조형래(1995)는 위험감수 성향이 성과변수와 강한 상황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반면, Brockhaus(1980)의 연구에서는 위험감수 성향과 기업 성과 간에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의 인내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egley & Boyd, 1987; Sexton & Bowman, 1985).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창업자의 기업은 높은 성과를 가진다(Begley & Boyd, 1987).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심할수록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위해 기업내부의 기술능력과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위험감수를 전제로 한 경영활동을 하거나 혹은 지나친 시장경쟁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때문에 위험을 되도록 피해하려고 할 것이므로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에 영향을 미친다(Covin & Slevin, 1989). 위험감수성향이 부족하면 벤처기업의 특성상 사업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의 높아진다.

가설Ⅱ.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은 중국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설Ⅲ: 창업가 혁신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개인특성으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혁신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혁신성의 구성요인으로 보는 연구와 혁신적인행동을 구성요인으로 보는 연구이다. 하지만, 창업

가의 심리적 특성은 혁신성의 측정변수로도 사용하고 선행변수로도 사용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들어, McClelland(1961), Collins & Moore(1964)는 개인 심리적 특성, 즉, 성취욕구, 내적 통제위치, 위험추구성향, 모호성의 수용 등을 혁신성의 구성요인으로 본 반면, Gartner(1985), Covin & Slevin(1991), Brazeal(1993), Hornsby와 그의 동료들(1993)등의 연구자들은 이들 변수를 혁신성의 예측치, 즉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보았다. 이처럼 심리적 특성변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혁신성의 선행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혁신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 심리적 특성 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Hornsby와 그의 동료들(1993)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개인 심리적 특성을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로 보려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Ⅲ.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는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Ⅳ.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은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Ⅴ.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혁신성은 중국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선행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도출하였으며,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형식의 다항목 척도들로 측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변수의 상태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주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가. 독립변수

(1). 성취욕구

성취 욕구란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의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Blackburn, R.S(1981) and Steers, R.M & Braunstein, D.N.(1976) 의 연구를 기초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4-1>은 벤처창업가 성취욕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문항과 관련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창업가 특성 성취욕구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변 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관련연구
성취욕구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정도	연속변수 5점 척도	Blackburn, R.S(1981) Steers, R.M & Brau nstein, D.N.(1976)

(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나 어떤 위험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성향을 의미는 것으로 위험감수성향은 특히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창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으로 창업가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행동과 학자들은 위험감수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창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라고 주장한다.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는 요인으로써 위험과 수익성 있는 사업의 선호, 과감한 행동의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한 대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Boone & Brabander, B.D(1997)의 연구를 기초로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4-2>은 벤처창업가 성취욕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 벤처창업가 위험감수성향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관련연구
위험감수성향	어떤 위험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성향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	연속변수 5점 척도	Boone & Brabander, B.D(1997) Zahra (1991)

나. 매개변수

혁신성

창업가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 기존의 창업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을 주로 창업가 특성으로 다루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매개변수로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하며 혁신성이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지원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기술과 방법 등을 찾으려는 노력, 끊임없는 업무개선, 혁신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써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vin & Slevin(1991), Miller(1998) 그리고 Zahra(1991)의 설문항목을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벤처창업가 혁신성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벤처창업가 혁신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관련연구
혁신성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방법과 새로운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도 또는 찾으려는 노력	연속변수 5점 척도	Covin & Slevin (1991) Miller(1998) Zahra(1991)

다. 종속변수

경영성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다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벤처기업들은 자사의 재무적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를 꺼려하며 또한 중국 벤처기업은 상장기업이 적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구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중국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적 지표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는데 Zahra, S.A(1996), 한상철(1997), 양희순(2002), 김효중(2006)의 연구를 기초로 생산성, 회사 전반적인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 수익성, 회사의 수익성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벤처 창업가 경영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벤처 창업가 경영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척도	관련연구
경영성과	생산성 수익성 시장 점유율	연속변수 5점 척도	Zahra, S.A(1996) 한상철(1997), 양희순(2002), 김효중(2006) 김태헌(2006)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성취욕구 4개 문항 구성하였다.

두번째는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위험감수성향 3개 문항 구성하였다.

세번째는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혁신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네번째는 경영성과에 관한 설문으로 벤처기업의 시장점유율, 생산성, 수익성에 따른 만족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섯번째는 벤처기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설문으로 창업 시 연령, 학력,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정도, 직장근무경험, 업종, 소재지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4-5>와 같다.

<표 4-5> 설문지 의 구성

변 수	문 항 수	문 항 번 호
성취욕구	4	1-1 ~ 1-4
위험감수성향	3	2-1 ~ 2-3
혁신성	3	3-1 ~ 3-3
경영성과	3	4-1 ~ 4-3
연령	1	5-1
학력	1	5-2
전공분야	1	5-3
생산제품과의 관련성	1	5-4
창업경험	1	5-5
직장근무경험	1	5-6
지장경험과 관련성	1	5-7
업종	1	5-8
소재지	1	5-9

제2절 표본의 선정 및 특성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벤처기업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창업가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그리고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가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의 표본은 중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설문조사기간은 1차조사가 2008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2월 20일 까지 2개월간 이루어 졌습니다. 1차조사는 무응답 설문이나 불성실하게 제외하고 137부를 수집하였습니다. 2차조사는 2009년 6월 22일부터 2009년 8월 22일 까지 2개월 이루어 졌습니다. 2차조사는 무응답 설문이나 불성실하게 제외하고 177부를 수집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성(吉林省), 천지(天津直轄市), 상해(上海直轄市), 광둥성(廣東省)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벤처기업은 300개 업체를 있으며 1991년 3월 중국 과기부에서 발표한 『國家高新技術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證條件和方法』에서 규정한 산업에 속할 경우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는 조사원의 설명과 도움을 얻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4개월 동안 500부를 배포하여 396부를 수집한 후 무응답 설문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인 82부를 제외하고 31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27.7%, 30-39세가 33.8%, 40-49세가 28.7%, 50-59세가 9.2%, 60세 이상이 0.6%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12.1%, 전문대졸은 17.8%, 학사취

득자는 36.0%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취득자는 24.5%이며, 박사취득자는 4.8%이며 기타는 4.8%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 경제학 출신은 10.2%, 공학(엔지니어)출신은 20.4%이며, 자연과학 출신은 20.4%이며, 인문사회 출신은 22.6%이며, 전공분야와 생산제품의 관련성 정도는 11.1% 전혀 관련 없으며, 15.6% 대체로 관련 없으며, 19.7% 보통이며, 29.0% 대체로 관련 있으며, 24.5%는 매우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 근무 경험은 79.0% 있으며, 업종별 특성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5.9%, 정보·S/W는 12.4%, 연구개발서비스는 16.9%이며,

건설운수는 8.9%이며, 도·소매업은 12.1%이며, 농·어·임·광업은 8.9%이며 기타는 24.8% 나타났으며, 창업 경험을 살펴보면 39.2%가 창업경험이 있었으며 59.9%는 그전 창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길림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지역이 19.7%, 천진지역이 22.9%, 광주에서 20.1%를 나타냈다

〈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연령	30세 이하	87	27.7	창업 경험	있다	123	39.2
	30-39세	106	33.8		없다	191	60.8
	40-49세	90	28.7	근무 경험	있다	248	79.0
	50-59세	29	9.2		없다	66	21.0
	60세 이상	2	.6				
학력	고졸이하	38	12.1	업종	제조업	50	15.9
	전문대졸	56	17.8		정보 소프트웨어	39	12.4
	학사	113	36.0		연구개발서비스	53	16.9
	석사	77	24.5		건설운수	28	8.9
	박사	15	4.8		도, 소매업	38	12.1
	기타	15	4.8		농. 임. 광업	28	8.9
전공	경영, 경제학	32	10.2	기타	78	24.8	
	공학(엔지니어)	64	20.4				
	자연과학	64	20.4				
	인문사회	71	22.6				
	기타	83	26.4				
생산 제품 관련성 정도	전혀관련없다	35	11.1	소재지	길림	95	30.3
	대체로관련없다	49	15.6		상해	62	19.7
	보통이다	62	19.7		천진	94	29.9
	대체로관련있다	91	29.0		광둥	63	20.1
	매우관련있다	77	24.5				
계	314	100%	계	314	100%		

제3절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에는 SPSS 14.0 KO for Windows를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경로분석은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혁신성과 경영성과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색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분석을 먼저 실시하며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변수 즉,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변수의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점과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매개변수는 특성상 모형에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특히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 매개 변수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회귀분석 대신 경로분석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쉽게 다룰 수 있지만 경로분석에는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가 사용되므로 측정오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aum(2003)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간접 및 직접모형에 기초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주관적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이 주관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창업가의 혁신성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은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Preacher & Hayes , 2004).

제5장 실 증 분 석

제1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에 앞서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다. 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변수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 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그렇다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연구 대상에 많은 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정충영, 최이규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용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전체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고 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당성,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 타당성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개념 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 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흔히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판별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 관련타당성은 특정변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1개 문항에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에서 2개 문항, 위험감수성향에서 2개 문항, 혁신성에서 3개 문항, 경영성과에서 2개 문항이 제거되어 총 13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를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20.62%, 경영성과의 설명분산은 17.03%,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을 설명해주는 설명분산은 14.46%, 혁신성은 13.02%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5.14%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Cronbach's Alpha 분석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는 $\alpha=0.828$, 중국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alpha=0.859$,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alpha=0.775$, 혁신성은 $\alpha=0.719$ 로 나타났다.

〈표 5-1〉 변수의 탐색적요인 및 신뢰성 분석

개 념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성취욕구	성취욕구4	<u>.871</u>	.061	.142	.013
	성취욕구3	<u>.866</u>	.025	.209	.033
	성취욕구2	<u>.854</u>	-.054	.144	.052
	성취욕구1	<u>.733</u>	.251	.020	.024
경영성과	경영성과2	.051	<u>.851</u>	.102	.208
	경영성과3	.008	<u>.824</u>	.101	.166
	경영성과1	.135	<u>.800</u>	.052	.107
위험감수 성향	위험감수성향2	-.004	.101	<u>.773</u>	.098
	위험감수성향3	.208	.099	<u>.751</u>	.066
	위험감수성향1	.115	.117	<u>.748</u>	.152
혁신성	혁신성1	.189	.253	-.070	<u>.759</u>
	혁신성2	.130	.076	.107	<u>.731</u>
	혁신성3	.199	.214	.073	<u>.697</u>
고유치		3.506	2.897	2.458	2.215
설명분산(%)		20.621	17.038	14.462	13.027
누적분산(%)		20.621	37.660	52.121	65.148
Cronbach's Alpha		<u>.828</u>	<u>.849</u>	<u>.775</u>	<u>.719</u>
M		3.68	3.49	3.86	3.49
Std		.693	.751	.635	.734

제2절 상관관계 분석

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분석에 사용할 잠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5-2>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욕구는 모든 잠재변수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감수성($r = .425$), 혁신성($r = .413$), 경영성과($r = .394$)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위험감수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혁신성($r = .4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경영성과와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는 못했다. 혁신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영성과($r = .48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2> 변인들의 상관관계

	1. 성취욕구	2. 위험감수성	3. 혁신성	4. 경영성과
1	1			
2	.425**	1		
3	.413**	.405**	1	
4	.394**	.254	.485**	1

* $p < .05$, ** $p < .01$

2.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구조모형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다변량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서 분석되는 것임으로 먼저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단치, 변량의 정규성, 다변량 가정,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다. $CD_i > 1$ 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관측값으로 해석하여 제외하고 분석을 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14사례에서 극단 값으로 나타난 사례가 없어 314사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의 경우 3이상, 그리고 첨도의 경우 10이상 일 때 변량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왜도는 3이하이고 첨도는 10이하 이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시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에서는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각 유형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였다. 또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도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오차분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다. 완전 정적상관일 경우는 d값이 0이고 완전 부적상관일 경우에는 d값이 4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의 선형성(linearity)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산 증가 요인이 10이상이면,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조합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3절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할 수 없는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보다 복잡한 분석이 요구될 때 구조 방정식 모형을 쉽게 분석해 주는 도구로써, 다수의 설문 문항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인 점수나 요인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되어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묻혀 결과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경우에 활용될 뿐이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가정되고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표시해 줄 뿐, 예측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존재할 수 있는 간접효과나 제 3의 효과는 해석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경로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극복할 수 있다(이순목,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서 검증할 수 없는 모형의 적합성이나,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창업가 심리적 성취욕구 특성과 위험감수성향을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혁신성 그리고 결과변수로는 경영성과를 선정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심리적 성취욕구특성과 위험감수성향특성, 혁신성과 경영성과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6.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김계수, 2003). 가설 경로의 부합지수는 20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χ^2 , GFI, RMR 등), 증분적합지수(NFI, CFI 등), 간명적합지수(PNFI, AGFI 등) 등이 이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RMR은 실제 자료의 값과 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을 표준화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

이며 적합도가 낮은 모형일수록 더 큰 양의 값을 나타낸다. GFI는 표본크기의 변화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자료에서의 적부를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R²과 비슷하며, 모형의 절대적인 부합정도의 판단에 주로 이용된다(김계수, 2003). GFI는 일반적으로 0.9 이상일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GFI의 사용을 권한다(이순목, 1990).

다음으로 AGFI는 변수의 수와 관련 있는 모형의 자유도를 GFI에 조절한다. GFI와 마찬가지로 AGFI 역시 0.9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좋다(Silvia, 1988). 일반적으로 AGFI 값은 GFI 값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부합지수인 NFI는 적합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합지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다. 또한 이밖에 NFI를 변형한 지수로 모델의 간명성(절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명부합지수(PNFI)가 있는데(James, Mulaik, & Brett, 1982), 이는 추정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AMOS의 또 다른 목적으로 가장 간명하고 절약성이 있는 모델을 찾고자 할 때, 각 모델의 PNFI의 차이값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선택한다. PNFI는 명확한 준거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수용 가능한 준거로 모델의 PNFI가 0과 1사이의 값에서 클수록 좋은 모형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Williams & Podsakoff, 1989). 모형 간을 비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수가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델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CFI)이다. CFI도 PNFI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CFI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모형(nested model)에서 풀모형과 축소모형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CFI 역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9 이상의 값을 가지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Widaman, 1985). 카이제곱(χ^2)은 모형이 얼마나 현실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보통 100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경영성과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투입되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박혜정,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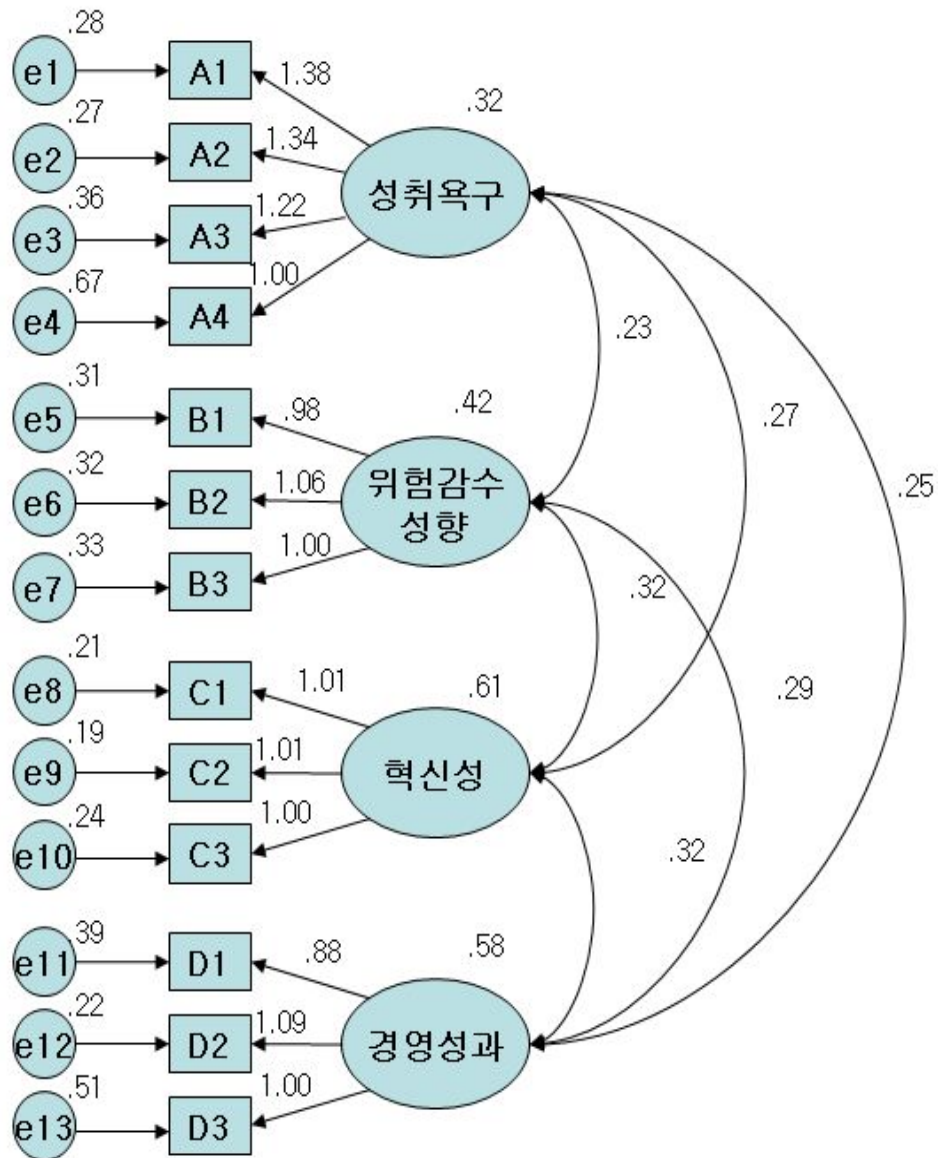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5-3>에 나타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274.964$ ($p<.001$)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21 TLI=.898, CFI=.915이며, RMSEA= .074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5-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df	NFI	TLI	C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80*	>.05
연구모형	274.964	113	.921	.898	.915	.074	.000

*: RMSEA 가<.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10이면 나쁜 적합도 (홍세희, 2007).



〈그림 5-1〉 측정모형분석

〈표 5-4〉에는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회귀 값을 제시하였다.

〈표 5-4〉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성취욕구	→	X1	1.000	.838		
	→	X2	1.128	.877	.064	17.545
	→	X3	1.081	.891	.060	17.931
	→	X4	.769	.669	.064	11.944
위험감수성향	→	X5	1.000	.791		
	→	X6	1.075	.872	.074	14.441
	→	X7	.868	.736	.071	12.265
혁신성	→	X8	1.000	.724		
	→	X9	1.058	.716	.112	9.449
	→	X10	.877	.634	.101	8.652
경영성과	→	X11	1.000	.714		
	→	X12	.628	.517	.090	7.083
	→	X13	1.156	.796	.130	8.891
	→	X14	.609	.431	.101	6.008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경영성과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 투입되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박혜정, 2007).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분포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5〉에 나타나 있다.

〈표 5-5〉 요인 간 공분산(상관관계)

			공분산 추정치	상관관계 추정치
성취욕구	↔	위험감수성	.287	.578
성취욕구	↔	혁신성	.276	.607
성취욕구	↔	경영성과	.198	.461
위험감수성	↔	성취욕구	.315	.569
위험감수성	↔	혁신성	.200	.384
위험감수성	↔	경영성과	.055	.122
혁신성	↔	성취욕구	.245	.513
혁신성	↔	위험감수성향	.295	.528
혁신성	↔	경영성과	.049	.118

제4절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대한 요약은 〈표5-6〉과 〈표5-7〉에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가설 I,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1.507$,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I,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t=1.151$, n/s)을 미치지 않아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III, “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는 창업가의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2.295$,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가의 혁신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가설 검증표 1

		β	t	p	결과
I	성취욕구 → 경영성과	.172	1.507 ^{***}	0.00	지지.
II	위험감수성향 → 경영성과	.261	1.151	.184	<i>n.s</i>
III	성취욕구 → 혁신성	.381	2.295 ^{***}	0.00	지지
IV	위험감수성향 → 혁신성	.224	3.112 ^{***}	0.00	지지
V	혁신성 → 경영성과	.358	2.418 ^{**}	0.04	지지

$p<.05$, $**p<.01$, $***p<.001$

가설 IV,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가의 혁신성에 분권화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3.112$,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가의 혁신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V, 혁신성이 경영성과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2418$, $p<.001$)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음은 혁신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표5-7〉에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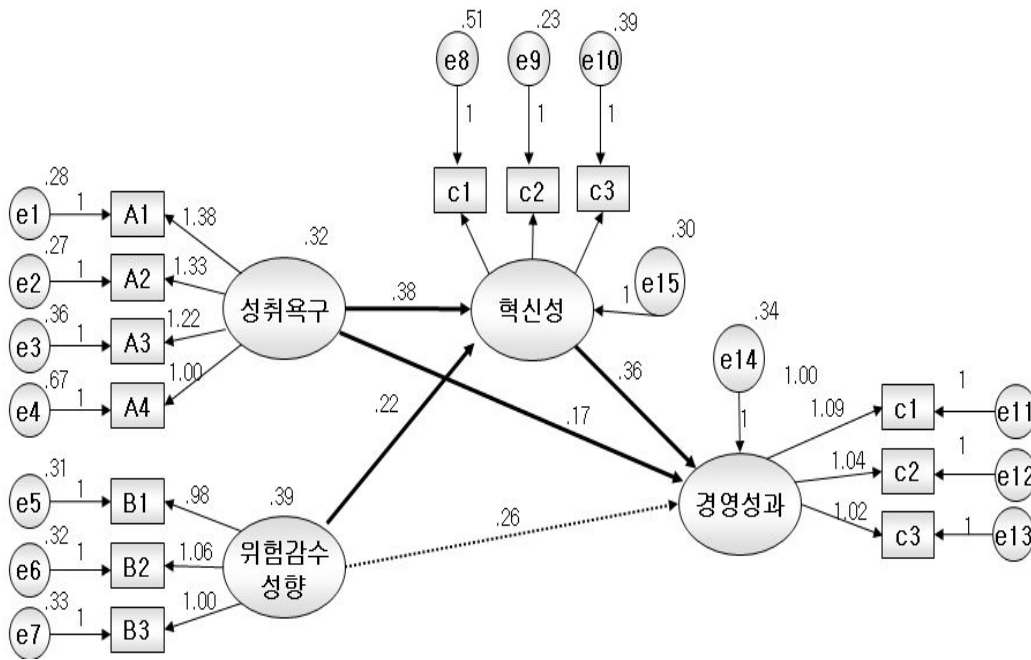
〈표 5-7〉 가설 검증표

	경로	z	결과
IV-1	성취욕구 → 혁신성 → 경영성과	1.505**	.지지
IV-2	위험감수성향 → 혁신성 → 경영성과	1.208	n.s.

* $p < .05$, ** $p < .01$, *** $p < .001$

창업가의 심리적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과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변인 중에 성취욕구와 혁신성은 유의미한 효과($z = 1.505$, $p < .001$)를 보여 가설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혁신성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2〉 경로계수

연구모형에서는 성취욕구는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혁신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은 미치지 않았다.

제5절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대한 요약을 하면

가설 I,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1.507,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I,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t=1.151, n/s$)을 미치지 않아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III,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는 창업가의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2.295,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가의 혁신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V,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가의 혁신성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3.112, p<.000$)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가의 혁신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V, “혁신성이 경영성과에 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영향력($t=2.418, p<.001$)을 행사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과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변인 중에 성취욕구와 혁신성은 유의미한 효과($z=1.505, p<.001$)를 보여 가설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혁신성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중국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과 경영성과에 대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혁신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중국에 소재한 314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창업가 특성이나 조직구조 등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동일한 외생변수로 다루어 왔던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Baum(2003)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에 근거를 두고 창업가 심리적인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을 혁신성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창업가 심리적인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혁신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분석 및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가 심리적인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가의 심리적인 특성인 성취욕구는 혁신성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수성향은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Brockhaus, 1980; Stuart & Abetti, 1990; Vella, 1998; 서근하, 2005; 김광숙, 2007)의 연구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선행연구, 즉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혁신성의 구성개념이나 동일한 창업가 특성변수로 사용하기 보다는 혁신성의 선행변수로 사용하

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연구결과(Gartner, 1985; Covin & Slevin, 1991; Brazeal, 1993; Hornsby, 1998; 구연희, 2006)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성이 벤처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수단이 된다는 연구결과(Duchesnea, & Garter, 1990; Jaworski & Kohli, 1993; Matsuno, 2002; 서근하, 2005)와 일치하며 이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있어 혁신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심리적인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혁신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aum(2001)의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선행연구, 즉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혁신성의 구성개념이나 동일한 창업가 특성변수로 사용하기 보다는 혁신성의 선행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연구결과(Gartner, 1985; Covin & Slevin, 1991; Brazeal, 1993; Hornsby, 1998; 구연희, 2006)와 일치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직, 간접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이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 계량적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방법 의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경향이었고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경영성과 결정요인이나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존에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상해(上海), 길림(吉林), 천진(天津), 광둥(廣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종속변수인 성과로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재무적지표의 공개를 꺼려하는 중국 내 벤처기업이 많아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 내 벤처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에 소재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연희(2007),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 성장의 결정요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언수(2002), 『TOP을 위한 전략경영』 2.2, 박영사.
- 김영배, 하성욱(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조사: 핵심성공요인, 환경특성, 최고경영자 역할과 외부자원 활용”, 기술혁신연구, Vol.1, pp.25-154
- 김영운(2003),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재(2006),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재, 이용탁(2001), “중소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준(2004),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4단계 전략”, LG주간경제 774호.
- 박추영(2008), “중국 벤처기업의 국제화: 해외시장 진출방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규, 이창수(2006), “경영위험 감수성향과 의사결정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4호(2006년 8월), pp.1555-1580.
- 서정희(2006),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삼성경제연구소(2003),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CEO Information 322호.
- 삼성경제연구소(2003), “중국시장은 하나지만 하나가 아닌 시장”, World Report 72호.
- 양희순(2002),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문섭(2004), “벤처기업의 창업자 배태조직 및 경험유형에 따른 기업성과의 차이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 윤희숙(2008), “중국의 WTO가입 7주년 한중투자전략” 『경영요육논총』 제 50집, pp.182-185
- 이영덕 외(2004), 『중국 벤처비즈니스의 이해』, 두남사.

- 이병기(2002),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의 실증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5(2) : 93-109.
- 이장우(1997), 『벤처경영』, 매일경제신문사.
- 이장우(1997),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준계학술연구 논문발표집』.
- 이장우(1998), “성공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제 1호, pp.101-128.
- 이장우, 장수덕(1999), “성공벤처기업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1(1), pp.105-133
- 이장우, 장수덕(1999), “벤처기업 성공유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1(2), pp.69-95.
- 이장우, 장수덕(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pp.59-92.
- 이장우, 이현숙(2000),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3(2), pp.3-31.
- 이장우, 최명신, 사무엘츄(2002), “벤처기업의 국제화: 해외시장 진입전략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31권 제4호, pp.1135-1162.
- 이장우(2000), “성공 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벤처경영연구』, vol. 1, pp.101-128.
- 이장우, 허재진(2007), “중국 벤처기업의 성과요인” 한국산업경영학회.
- 이장우, 허재진, 趙建(2007), “중국 벤처기업의 성과요인: 한국 벤처기업과의 비교연구”, 『벤처경영연구』, 2007 vol.22, No.3
- 이장우, 이성훈(2002), “벤처기업의 성장정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vol.5, No.2
- 이장우, 최명신, 강용운, 김광일, 임강원(2008), “한·중 벤처기업의 국제화 비교 연구: 해외시장 진입유형 선택을 중심으로.” 2008 제10회 경영 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 중소기업학회 발표 논문』. p97.
- 이춘우(2005),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4권, 제2호.
- 장수덕(2000), “기업가 특성, 환경, 전략 및 조직특성에 따른 벤처기업 성과변화”, 경북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 장수덕(2006), “한·중 벤처기업의 특성비교”, 『벤처경영연구』, 제9권 제3호, pp.81-108.

- 장수덕, 이장우(2003),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특성과 성과변화”, 『한국경영과학회지』 28(2), pp.35-60.
- 정성한, 김혜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벤처경영연구』 4(2), pp.3-29.
- 전재수(2008), “창업가·환경·전략·조직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래(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 중소기업청(2003), 벤처기업 실태조사
- 정화영(1996), “예산참여가 목표수준 및 목표몰입에 따라 동기부여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全香花(2010), “中國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成果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孫泰植(2010), “中小企業 從業員이 知覺하는 CEO特性和 이미지가 企業競爭力에 미치는 影響”,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침희(2008), “중국기업의 핵심역량이 지각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한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이규(2006), 『구조방정식 모형』, 무역경영사.
- 한광학(2005), “중국 벤처기업의 자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許宰振(2004), “중국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7) “경영학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경영학연구』 .
- 홍석도(1991),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 본부.

〈영문문헌〉

- Amit, R., Glosten, L. and Muller, E.(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815-834.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 J. R., & S. Wally.(2003), “Strategic Decision Speed and Firm Performance”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1) : 1128-1129.
- Baum, J. R., Loche, E. A. and K.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 292-303.
- Begley, T. M. and D. P. Boyd.(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 79-93.
- Bird B. J.(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J. A. Katz and R. H. Brockhaus(Eds.),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 Greenwich, C. T.: JAI Press, pp.11-48
- Birley, S. and D. Norburn.(1987), “Owner and Manager : The Venture 100 vs The Fortune 500”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 351-364.
- Blackburn, R. S.(1981), “An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St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Manifest Needs Questionnaire” , Journal of Management 7(2) : 52-55.
- Brockhaus. R. H.(1980), “The Effects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rt Business” ,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8(1), pp.37-43.
- Boone, C. and B. D. Brabander.(1997), “Self-Reports and CEO Locus of Control Research: A Note” , Organization Studies 18(6), pp.949-971.
- Budner, S.(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6, pp.50-58.

- Chandler, G. N. and S. H. Hanks.(1994),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8(3) : 77-89.
- Chandler, G. N. and S. H. Hanks(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 331-349.
- Chen, C. D., Green, P. G. and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pp.295-316
- Child, J.(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 *Sociology*, pp.1-22
- Chrisman. J. J., Bauerschmidt, A. and C. W. Hofer.(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An Extended Model” ,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23(1) : 5-29.
- Cooper, A. C., Gimeno-Gascon, F. J. and C. Y. Woo.(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 371-395.
- Cooper, Aronald C.(1993), “Challenges in Prediction New Firm Performance”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 241-253
- Covin, J. G., D. P. Slevin, and T. J. Covin(1990), “Content and Performance of Growth-seek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Small Firms in High-and-Low Technology Industries”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pp.391-412.
- Covin, J. G. and D. P. Slevin.(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6(1) : 7-25.
- Ding, L., Velicer, W. F. and L. L. Harlow.(1995), “Effects of Estimation Methods, Number of Indicators per Factor and Improper Solutions on Srtuctral Equation Modeling Fit Indices”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 119-143.
- Dollinger, M. J.(1995), *Entrepreneurship : Strategies and resources*. Boston : Irwin.

- Duchesneau, D. A. and W. B. Gartner.(1990), "A Profile of New Venture Success and Failure in an Emerg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 297-312.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 696-706.
-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 pp.27-38.
- Gasse, Y.(1982), "Commentary Elaboration: Elabor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umpkin, G. T. and Dess, Gregory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 135-172.
- Herron, L. and R. B. Rovinson, Jr.(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 281-294.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 39-42
- Judge T. A., Erez, A. and Bono, J. E.(1998),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1(2/3) : 167-187.
- Locke, E. A. and Latham, G. P.(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acMillan, I. C. and D. L. Day.(1987). "Corporate Ventures into Industrial Markets : Dynamics of Aggressive En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29-40.

- MacMillan, I. C., Block, Z. and Subba Narasimha, P. N.(1986). "Corporate Venturing Alternatives Obstacles Encountered and Experience Effects"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pp.177-191.
- Maier, J. B., & Walker, D. A. (1987).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finance small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207-214.
- Malos, S. B. (1999). Professional employee retention in hi-tech. industries: Unfolding decision paths in a free agency labor market. Academy of Management 1999 Annual Meeting, Chicago, Illinois.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an Nostrand.
- McClelland, D. C. and D. Winter.(1969). Motivating Economic Achievement, New York, Free Press.
- McDougall, P. P., Robinson, R. B., & Denisi, A. S. (1992). Modeling new venture performance: An analysis of new venture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venture orga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 pp.267-289.
- Miller, D. & P. H. Friesen.(1993). "Strategy Making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 pp.211-235.
- Murray, H. A.(1983), "Explorations in Personality"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ure, J. B. and R. H. Keeley.(1990). "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 Journal of Business Ventureing, 12, pp.201-220
- Sadri, G. and Robertson, I. T.(1993),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Behavior: A Review and Meta-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2, pp.139-152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eing, 2, pp.5-28.
- Sexton, D. L., & Bowman, N. (1984), "The Effects of Preexist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New Venture Initiations"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Boston, MA.

- Sexton, D. L., & Bowman, N. (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s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 129-140.
- Smith, H. C.(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Smith, N. R. and J. B. Miner.(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 pp.325-340
- Steers, R. M.(1975). "The Effects of Achievement on the Job-Performance Attitude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pp.678-682
- Stuart, R. W. and P. A. Abetti.(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a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 pp.151-162.
- Van de Ven, A. H., Hudson, R., & Schroeder, D. M. (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1) : 97-107.
- Vesper, K. H.(1980), *New Venture Strateg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 Zarhra, S. A. (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259-285.
- Zimmerer, T. W. & Norman M. Sarborough.(1996).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Venture Formation*. Prentice Hall, Inc.

〈중국문헌〉

李英, 陳岩(2001). “風險投資与高新技術中小企業的發展”, 財經問題研究 11(216).

裴蕾(2008). “四川省高薪技術中小企業成長動因研究”, [M], 西南交通大學.

孫琪(2002). “融資政策机制”.

清華創業研究中心(2002), “GEM世界風險投資企業觀察 2002中國創業觀察報告”.

舒少澤(2002), “我國高薪技術企業國際化初探”, 改革論壇理論月刊, (2).

中國國家統計局報告(2007).

中國風險投資聯盟网 (<http://www.vcu-china.com>)

科投研中心(2004), “創業家指: 企業, 任重而道遠”

張軟美(2002), “關於中國中小企業成長階段的資金管理”

설문지

調查問卷

閣下,您好!

感謝您在百忙之中參與此次問卷調查,

此次問卷調查是關於研究 [風險企業的經營成果] 而作成.

本問卷調查主要分析風險企業發展,

以及爲了重要的學術成果資料而擬定.

閣下所填寫的內容是以匿名的方式進行統計處理的,

依照統計法的秘密保障規則進行記象.

您充滿真誠的應答會給我帶來很非常大的幫助.

誠懇的表示感謝!

2009年1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指導教授: 尹 宗 錄

研究者: 台 亮

(H.P: 010-3313-7677)

E-Mail : seven-i@msn.com

1. 下面是,關於創業者“成就要求”的提問,請在適當的地方划“√”。

項 目	一点也不		普通一般		特別
	1	2	3	4	5
1. 想做一番值得讓世界吃驚,為之一振的大事.					
2. 我對工作的都會盡心盡力的去做.					
3. 在我的事業中,我會有所作爲.					
4. 一旦我有工作要做的時候, 就會有徹夜不睡, 也要做下去的傾向.					

2. 下面是,關於創業者“風險承受能力”的提問,請在適當的地方划“√”。

項 目	一点也不		普通一般		特別
	1	2	3	4	5
1. 假如出現不確定的情況,與其小心謹慎,被動的等待, 不如更果斷的去處理.					
2. 我所謂最有意義的生活是, 在急速變化的環境之中生存.					
3. 相比 比較簡單的問題, 我更喜歡處理較複雜的問題.					

3. 下面是,關於創業者“革新性”的提問,請在適當的地方划“√”。

項 目	一点也不		普通一般		特別
	1	2	3	4	5
1. 我對職員的創意和新建議會積極的採納.					
2. 我為了尋找革新性的思維,正在努力.					
3. 我在工作過程之中,會努力的去尋找新的技術. 新的方法.新的工具,等.					

4. 下面是，關於貴公司“經營成果”的調查與提問，請在適當的地方划“√”。

項 目	一點也不		普通一般		特別
	1	2	3	4	5
1. 我公司的市場占有率與同種業界比較來看,較高.					
2. 我公司的生產性與主要競爭者比較來看,較高.					
3. 我公司的收入與同種業界比較來看,算是較高.					

5. 下面是，關於您個人情況的調查。

1. 您創業時候的年齡是多少？

- ① 30歲一下 ② 30-39歲 ③ 40-49歲 ④ 50-59歲 ⑤ 60以上

2. 您的最終學歷是什麼？

- ① 高中以下 ② 大專 ③ 本科 ④ 研究生 ⑤ 博士 ⑥ 其他

3. 您的學歷是專科以上的情况下,最終學歷的專業是什麼？

- ① 經營,經濟學 ② 理工科(工程師) ③ 自然科學 ④ 人文社會 ⑤ 其他

4. 您的所學專業與貴公司生產的產品關聯度有多少？

- ① 根本沒有關聯 ② 大体沒有關聯 ③ 普通 ④ 大体有關聯 ⑤ 非常有關聯

5. 您在經營現企業之前,是否有經營其他企業的經理？

- ① 有 ② 沒有

6. 您之前是否有過工作經驗？

- ① 有 ② 沒有

7. 若有工作經驗,那麼與現在貴公司的產品關聯度有多少？

- ① 根本沒有關係 ② 大体沒有關係 ③ 普通 ④ 大体有關係 ⑤ 非常有關係

8. 您的業種屬於什麼？

- ① 再造業 ② 情報處理S/W ③ 研究開發服務 ④ 建設運輸
⑤ 批發零售業 ⑥ 農.漁.林.光.業 ⑦ 其他

9. 貴公司的所在地在哪里？

- ① 吉林省 ② 上海地區 ③ 天津地區 ④ 廣東

♀♀ 真誠的感謝您的參與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경 영 학 과	학 번	20097706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태 량 량	한문: 台 亮 亮	영문: TAI LIANGLIA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석동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8층 872호실				
연락처	e-mail : seven-i@msn.com				
논문제목	(한글) 중국벤처기업 창업가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성의 매개효과 -				
	(영문) The Effect of Chinese Venture Entrepreneu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Risk-taking Proper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 The Role of Innovativeness as A Mediator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1년 02월

저작자 : 태 량 량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